

‘알짜 카드’ 찾아라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에 역발상 공격형 카드 부상

최근 고가의 물품을 사고 결제를 하면서 해당 점포가 카드사와 제휴가 해 지되면서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당혹스러운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함에 따라 그동안 고객에게 제공해왔던 대표적인 부가서비스인 무이자할부를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 딱 한 장만 있으면 모든 가맹점 무이자할부 등 부가서비스가 가능한 ‘만능 카드’도 아직 많다. 또 부가서비스 축소 틈새나 역발상의 공격형 카드도 새로 뜨고 있다.

기존보다 혜택이 더 좋아지고 부가서비스도 다양해진 대표적인 ‘알짜 카드’를 소개한다.

신한카드에는 모든 가맹점에서 조건 없이 무이자할부가 가능한 ‘신한 심플(Simple)카드’를 발급 중이다. 전월실적과 상관없이 무이자할부가 가능해 가입자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 1000원 미만 잔돈을 할인해주는 ‘코인세이버’ 혜택도 있다. 슈퍼마켓·할인점·편의점·병원(동물병원·요양병원 제외)·약국 업종과 주요 커피전문점 및 베이커리 등 생활친화형 가맹점에서 건당 2만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 금액을 월 10회까지 전월 실적과 상관없이 할인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에는 무이자할부는 물론 복잡한 제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숫자카드 ‘삼성카드 4’를 선보였다. 이 카드는 전 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또 전월

실적·이용조건·할인한도 등 복잡한 조건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기본 0.7%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할인이 더 높아져 이용금액의 1%를 할인해준다. 전국 모든 영화관에서 1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2500원 할인혜택(월 1회, 월 5회, 연 12회)도 누릴 수 있다.

롯데카드는 모든 신용카드에 대해

신한 심플카드

모든 가맹점 무이자할부

삼성카드 4

전가맹점 기본 0.7% 할인

롯데마트DC100카드

10만원 무료쇼핑 서비스

하나SK 빅빳카드

철도 5%·통신료 5천원 할인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닷컴에서 2~3개월 무이자할부를 기본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롯데닷컴에서는 가전 등 일부제품에 한해 6개월 무이자할부가 가능하다. ‘롯데마트 DC100카드’를 이용하면 전월 실적에 상관없이 전 가맹점에서 10만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해 2~3개월 무이자할부가 가능하다. 또 전월 카드 이용금액이 20만~40만원이면 롯데마트에서 사용한 금액의 5%를 1만원까지, 40만원 이상이면 10%를 3만원

까지 할인해준다. 3개월에 한번 최고 10만원의 무료쇼핑 서비스도 제공한다. 직전 3개월 월 평균 카드이용금액이 50만~70만원이면 3만원, 70만~100만원이면 5만원, 100만원 이상이면 10만원의 무료쇼핑금액을 지원한다.

하나SK카드의 대표적인 밀리언셀러 ‘하나SK 빅빳카드’는 국내 전 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놀이공원·영화·외식 등 다양한 문화 할인부터 주유, 통신, 교통할인 등 생활혜택까지 카드 한장에 결합한 실용적인 생활문화형 카드다. 높은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도 국내외 검정카드 연회비가 5000원으로 저렴한데다.

여기에 SK주유소 리터당 50원, KTX 포함한 철도승차권 5%, 이동통신료 최대 5000원 할인 등 실용적인 생활할인혜택도 누릴 수 있다. 영화관 월 최대 8000원, 유명 놀이공원 50% 할인 등 문화혜택도 다양하다.

BC카드의 ‘BC대한민국카드’는 국내 전 가맹점에서 연중 상시 2~3개월 무이자 할부혜택을 탑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GS칼텍스 주유소 이용시 리터당 120원 적립 ▲에버랜드·롯데월드·서울랜드 본인 및 동반 1인 무료입장 또는 자유이용권 50% 할인 ▲CGV 영화관 2000원 현장할인 등 생활전반에 걸쳐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 ▲KT금호렌터카 35% 할인 ▲오피스웨이 문구 최대 15% 할인 ▲최대 0.3%까지 TOP(탑)포인트 적립 ▲철도승차권 구매시 5% 할인 등과 같은 혜택도 제공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코스피 2000선 회복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하루 만에 2000선을 회복했다. 26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9.26포인트(0.46%) 오른 2007.32로 장을 마쳤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집주인 담보대출 내주 출시

6개 시중은행서

금리 연 3.5~4.9%

‘렌트푸어’를 지원하는 집주인 담보대출(목돈 안드는 전세 I)이 내주 6개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된다. 금리는 연 3.5~4.9%로 정해졌다.

은행마다 우대금리와 금리변동 방식이 천차만별이라 대출을 받을 경우 꼼꼼히 따져보는 게 유리하다.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목돈 안드는 전세 I(이하 목돈 전세) 상품 약관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이 약관을 승인하면 오는 30일부터 이들 은행 창구에서 목돈 전세에 가입할 수 있다.

목돈 전세의 금리는 최저 3.42%에서 최고 4.87%(신용도 5등급에 2년 만기 기준)로, 판매 은행과 우대 조건에 따라 1.45%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대출 한도인 5000만원을 빌릴 경우 연간 72만5000원의 이자를 더 내거나 덜 내는 셈이다.

은행별 금리는 신한은행이 3.42~

3.82%로 가장 낮고 우리은행(3.52~4.02%), 기업은행(3.59~4.68%), 국민은행(3.72~4.42%), 농협은행(3.62~4.82%), 하나은행(3.97~4.87%) 등이다.

신한·우리·국민·농협은행은 신규 코픽스 6개월 연동, 하나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연동금리다. 기업은행은 2년 고정금리 기준이지만, 코픽스나 코리보 연동 상품도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우체국서 ‘알뜰폰’ 본격 판매

기존 통신사보다 30% 저렴

오늘부터 ‘저렴한 이동통신’ 알뜰폰을 가까운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다.

통신업계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전국 주요 226개 우체국이 오늘부터 알뜰폰 수탁판매에 나선다.

알뜰폰 사업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뜰폰은 망 투자와 운영비가 들지 않아 이동통신사보다 30% 가까이 요금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유통망과 홍보가 부족해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우체국에서 알뜰폰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아이즈비전, 유니캡즈(이상 SK텔레콤 망), 에네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이상 KT 망), 스페이스네트, 머천드코리아(이상 LG유플러스 망) 등 6곳이다.

6개 사업자는 일단 선불 5종, 후불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30%가량 저렴한 이동통신 알뜰폰이 27일부터 전국 226개 우체국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된다. 서울 광화문우체국 알뜰폰 판매 전용 창구에서 직원들이 다양한 알뜰폰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종 등 총 18가지 요금제를 우체국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가입비는 없으며 기존 이동사의 표준요금제 대비 기본요금(후불)은 월 8천500원, 음성 통화는 초당 0.3원 저렴하다. /연합뉴스

이용자는 가격과 서비스 구성 등을 비교해 마음에 드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해당 요금제를 지원하는 단말기 모델을 선택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수출증가율↑ 고용 창출↓

수출 12년새 6배 증가… 고용은 전국 평균 밀돌아

광주·전남 지역의 수출이 전국 수출 연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 창출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광주·전남 지역 수출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수출은 2000년 90억달러에서 2012년 560억달러로 6배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전국 수출 증가세(같은 기간 3.2배)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광주와 전남의 수출은 각각 연평균 13.2%와 17.9% 증가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증가율이 2001~8년 평균 20.7%에서 2009~12년 평균 11.6%로 크게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전국(12.5%~8.0%)을 상당 폭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전남

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역 내 총생산과 비교한 수출비율이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다른 지역보다 수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수출의 자기지역에 대한 취업유발계수는 6.6명/10억원(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기준)으로 전국 평균(7.4명/10억원)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2006년 이후 전국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광주·전남 지역도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더욱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광주·전남지역의 수출 품목이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제품 위주로 이뤄져 있으며 수출기업이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기업으로 구성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남지하상가에 직거래 ‘농부장터’

광주시는 25일 다음달 5일부터 11월30일까지 매주 토요일 금남지하상가 내 만남의 광장에 직거래 ‘농부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부장터(오전 10시~오후 8시)에서는 전남도가 주관해 운영하는 8개(나주, 담양, 곡성, 화순, 함평, 장성, 영광, 진도)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한시적으로 농민이 직접 유통마진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번 농부장터 운영으로 비어 있던 만남의 광장을 활용해 금남지하상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



2013 무안 황토갯벌축제

2013 무안 황토·갯벌 1m³속 희망

2013. 9. 28(토)~29(일)

장소 무안생태갯벌센터 일원 (전남 무안군 해제면)

주최 무안군

2013 Muan Redclay Tidalflat Festival

2013. 9. 28(토)~29(일)

장소 무안생태갯벌센터 일원 (전남 무안군 해제면)

주최 무안군